옥누몽 권지칠

셰의연옥이올내쇼져거다려들어왈이진짓발
삼이니가진몽을ᄭᆡᆺ닷지못ᄒᆞ되ᄌᆞ쇼이다지금은타
어대잇다ᄒᆞ나니가쇼제역시구츄을흘니며왈ᄌᆞ
왈소ᄉᆡᆼ이욕병ᄒᆞᄃᆞ랴이져헐이라홍낭의얼굴
이화갈퇴여반다시홍원지아니ᄒᆞᆯ가ᄒᆞ엿더니
다연ᄉᆞ라낫도다이의홍낭의셔간을이ᄃᆡ혀들ᄂᆡ
뵈옥이여쥐여봉ᄒᆞ여왈샹공이불ᄌᆞ의환경을
시ᄒᆞ니쇼비낭ᄌᆞ의경두와ᄀᆞᆺ쳐가즉연을보ᄃᆡ져
즐옥우협즁의고은의상이업셔ᄀᆞᆫ소보겨보기밧ᄀᆞ
리와어지러되잇가쇼제웃ᄂᆞᆫ왈네ᄎᆞᆨ인이지금징츄
되여흉젹을감초ᄂᆞᆫ니아직ᄂᆞ셜치말나

즁버노릐날을곱아기다리더라이날쳔져
의일타ᄒᆞ여ᄂᆞᆫ길아손뒤집이여시셩각거ᄃᆡ젹
셰경치아니ᄒᆞ다ᄒᆞ나일ᄃᆡ현징으로ᄡᅡ우라ᄒᆞ니
국쳬ᄂᆞᆫ상이오볼가ᄒᆞ니여러가지라ᄒᆞ시ᄃᆞ니의
됴셔을보ᄂᆡ시니갈왓시ᄃᆡ
경은쥭지방쵸온총지ᄒᆞᆫ부라덕ᄇᆡᆼ이됴졍에나ᄉᆞ라
나ᄂᆞᆫ외엄이희기외진즁ᄒᆞ나초본녕젹을ᄭᅵ쳐ᄂᆞᆫ
노라졸이ᄇᆡᆫ형이망ᄒᆞᆫ츌복ᄒᆞ나즁증어ᄒᆞ호징이
ᄃᆞᆫ됨물우현일가ᄒᆞ엿더니그지ᄒᆞᆫ동쥭이반ᄒᆞ여곱뵈
네됴터젹쳬비경ᄒᆞ나회ᄂᆞᆫ리샬ᄋᆞ직ᄒᆞᆫ고지죽ᄒᆞᆫ
녀경으로ᄒᆞ여곰우셩난쥭의죡현ᄐᆡᄂᆞᆫ슉ᄃᆡ잇게
ᄒᆞ며ᄂᆡᆼ희동진의장모ᄒᆞᆫᄂᆞᆫ심ᄉᆞ을더으니ᄒᆞ량ᄃᆡᄂᆞᆫ

되이 죽이도다 경으로 금ᄒᆞᆫ 랑녹지 복우ᄂᆞᆫ 상졈은 ᄒᆞᄃᆞᆫ
현장슌변 복상셔 금오ᄃᆡ 평남되ᄂᆞᆫ 듁을 벗더니
복원슈 홍ᄒᆞᆫ 달노 현의 춍ᄉᆞᆫᄒᆞ여 짐의 바라ᄂᆞᆫ 듯
즐겨 바라지 말나 경의 죽ᄉᆞᆫ의 반왕나 탁이 아니면
남방을 진졍ᄒᆞᆯ 자 업다 ᄒᆞ니 뢰을 ᄉᆞᆫ ᄒᆞᆯᄃᆞ 두ᄂᆞᆫ으로 죠왕
호을 다시 쥬어 남방을 진졍ᄒᆞ여 쥭혜 업게 ᄒᆞ라 ᄒᆞ시다
쳔져 다시 홍ᄒᆞᆫ 달의게 ᄒᆞ러 ᄒᆞᄂᆞᆫ 달
김이 박덕 불명ᄒᆞ여 보위의 오ᄅᆞᆫ지 ᄉᆞᆫ년의 인져을
소뫼우 죽혀ᄂᆞᆫ 탄이 이러니 ᄒᆞ ᄋᆡ절 원ᄒᆞ여 ᄒᆞ 욕ᄒᆞᄂᆞᆫ
탄식이 잇실가 근심이러니 경 갓ᄒᆞᆫ 절 등 지져 ᄒᆞᆫ 원ᄒᆞᆫ 양
의 욕락 ᄒᆞᄂᆞᆫ 환ᄒᆞᆫ 도덕을 조졍의 미달ᄒᆞᄂᆞᆫ 즉 젹이
되 죽의 졈쳬 ᄒᆞᄂᆞ니 ᄂᆞᆫ 짐의 허물이라 ᄒᆞᆫ 편의

도으시ᄃ 즁셔다 복ᄒᆞᆫ슈의 빈의 낙시을 가ᄉᆞ여 죽
방울 불을ᄃ 탄졔의 칼을 잡혀 ᄒᆞᆫ 즁으로 도라하
오나이ᄂ 졍의ᄂ 거곰ᄒᆞ니 오황쳔이 집으로 좃남보
쳘을 죽시니 좌염의 되공을 일워서 다서 쳘권
녀ᄒᆞᆫ 영을의 논ᄒᆞᆯᄃ 쳔ᄉᆞᄒᆞᆨ 빅의 일홈이 엇날지라
이쳬ᄒᆞᆫᄃ 쥭이 뻔명을 침ᄒᆞᆯ나 경으로 량 쥭리 북
병부시랑 북원슈을 베히나되 도쥭 낭챵ᄒᆞ라
되ᄒᆞᆫ을 거ᄒᆞ여 ᄀᆞ지의 가되ᄂᆞᆫ을 일우게 ᄒᆞ라 ᄒᆞ편ᄂᆞ로
일년다 ᄀᆞ서 졀월이 ᄂ며 복원슈인슈을 나리야
경기홈 재되리 ᄒᆞ서라
ᄉᆞ신을 ᄎᆞᆫ여 쳥ᄒᆞ야 호죽ᄒᆞᆫᄃᆞ라 ᄒᆞᆫ시다 쳔시의 셜
낭이 츌ᄒᆞᆯ리 상하 죽외ᄒᆞᆫ 갓ᄒᆞᆫ 지ᄌᆞ 죠블의 약셩이

신셜치못ᄒᆞ여죽아비단ᄒᆞ나ᄒᆞ오소부쳐라자쳐리
인ᄂᆞᆫ여ᄒᆞᆫ쳐이방몬밧ᄭᅳᆯ나지아년지암의반년이
라밤이년의ᄒᆞ온친등을되ᄒᆞ여잠을일수지못ᄒᆞ
ᄒᆞᄃᆞ니지변쳑ᄒᆞ이몬을다ᄒᆞ매ᄂᆞᆫ볼노쇠월을보내
ᄃᆞ여여익이이졀ᄒᆞ로몰이시거ᄒᆡ여일장ᄒᆞᆫ회
이터ᄒᆞ니엇지차아지아니ᄒᆞ오시의황시모네간악
ᄒᆞᆫ계ᄋᆞ로두번모ᄒᆡᄒᆞ다가계ᄋᆞ일우지못ᄒᆞ매황
시변을일캇ᄂᆞᆫ본부의잇셔일년이로ᄌᆞ츠ᄒᆞ여아ᄆᆞ쪼
나셜낭을웅ᄒᆡ코져ᄒᆞ더니낭원츼숙어ᄒᆞᆫᄃᆡ몰ᄂᆞᆫ듯
ᄒᆞ되시ᄉᆞ려다ᄒᆡ월이낫너의게가본일이아니라쟝
쳐ᄒᆞ엿시ᄃᆡᄒᆡᄒᆞᄂᆞ다아연이함ᄌᆞ을ᄒᆞᆫ은지오ᄅᆡ나낭
낭여환가ᄒᆞ니변보은ᄒᆞᆫ니여내지경의ᄡᆞᄂᆞᆫ되오황시아
이을ᄉᆡᆼ거여ᄃᆞᆸ지아니ᄒᆞ거ᄂᆞᆯᄒᆞᆯ월이ᄋᆞᆺᄂᆞᆫ왈

봄이가변뎌울에드타오ᄃ그로서가ᄃ준변념
치이예ᄉ의일이따복인이쳐음게고을셔어이허시
ᄃ부이지네을헤서난나가외시단왈졸왈아너는
우디심복이타어지그ᄉ션환난을남외발을술듯ᄂ
다소저는쳔셩이안야해여원너영소너엇지몰게
을셩각지이너되는놀출왈이퀴왈슈담외이르대
도을버히변색디을쌥으타되엇시너복인은즁시
화ᄂ을무더두서ᄃ방나무을무로서나쳔비어저되
타서난나가어시촐월외손을잡은왈나의편이근
심출는비타어지혀변ᄂ외을덥서허디요촐월왈
ᄃ동티오티져결발이엽손이는쳔난을실네는연
디라로돼왕을축인후칼변동진이갈평이되엿
시너부인이안일범즁ᄂ여벽금을앗기지아니션룩

쳔비 ᄇᆡᆺ당에 광안을 ᄯᅢ명ᄒᆞ여 쉽쳔의 나ᄂᆞᆫ 편ᄂᆡ 슈
초시필 ᄒᆞᆯ가 ᄒᆞᄂᆞ이다
노뢴강의 오황부 가인던가 향강쥭
위시모네 쳐던 울듯ᄂᆞᆫ 긔ᄋᆞᆷ 왈이 열이 가랑드ᄂᆞᆫ 쟝뒤
운니 그 불가ᄒᆞ여 ᄆᆡ듀가져 되 삼엄ᄒᆞᆫ 져싱부즁의 자
리ᄋᆡ에 드러가미 십분 소홀 즁에 그 불가즁이 ᄒᆞ나이
은니 ᄉᆡᆼ낭을 모ᄒᆞ되 분불ᄒᆞ고 그 ᄯᅢᆨ을 시가ᄒᆞ여 은통을
독거ᄒᆞᆫ 비회에 졔ᄌᆞ 딕을 부뎌 그 ᄆᆡ듸ᄅᆞᆯ 취ᄒᆞ여 가ᄂᆞᆫ
평ᄉᆡᆼ이 ᄉᆡᆼ존ᄒᆞ자 ᄒᆞ니 비록 옷ᄉᆞᆯ 일ᄋᆞ나 본젼ᄌᆞ의 자
목을 엇지 그 ᄲᅡᆼ 쥴ᄒᆞ되 오에 불가ᄒᆞ미 듀가져 너 ᄃᆞᆫ ᄃᆞᄅᆞᆫ
졔교를 ᄉᆡᆼ각ᄒᆞ되 출월 ᄂᆞᆯ 초 쥐 이 갓ᄎᆞ 긍ᄒᆞ니 실진
디별당의 님군을 보기시니 목야을 주ᄒᆞ여 복귀ᄒᆞᆫ니
을 움ᄒᆞ여시니 엇ᄂᆞᆫ 쳔비는 듯ᄉᆞ오나 셩낭이 되면

쟈빙과 화을 빙쳐 봇ᄒᆞᆯ과 화 노랑은 엄엄ᄒᆞ고 울
힝실을 길너 심칙비슈 조련번 더ᄒᆞ나 시일보와
외ᄒᆞ혀 블주ᄐᆡ더 ᄃᆞ아녀와 화ᄂᆞᆫ을 업시ᄒᆞ여 쥴쥭
빗ᄉᆞ영이 쳔금으로 그증을 감ᄒᆞ되 화노랑이 지ᄀᆞᆯ 말
울ᄃᆞ로녀ᄂᆞᆫ 으로 외시의 ᄀᆞ석을 살리녀 소왈 린ᄃᆡ
그ᄃᆡ 필진ᄃᆡ 혹손ᄃᆡᄃᆡ나 이왕ᄃᆡ 비ᄅᆞᆫ의 로ᄅᆞᆯ 온ᄂᆡ니
슈이 올혹 오리이며 의시지 회ᄃᆡ여 빅금을 쥬ᄂᆡ 왈
은 조지 블이나 쳥을 조ᄎᆞᆯ고라 ᄒᆡ나 조랑이 밧지이여
왈 밧부지 아니ᄒᆞᆫ나 쳔ᄒᆞᆫ 혹 밧오리이다 ᄒᆞᄃᆞ가 ᄃᆡ파
노랑이 ᄋᆞᆨ일혹 미슉을 흠ᄃᆞ면져 ᄒᆡᆼ복의 가슴야 ᄒᆞ
여낭 북조 길셔 ᄒᆞᆫ월이 ᄋᆞᆼ복담 밧거셰 혹원길라
별당 물쳥을 길으쳐 ᄋ나 화리시는 삼월등 ᄋᆞᆫ이
라 쳔ᄃᆡ 쳥낭ᄃᆞᄃᆞ 월ᄋ이 조오편지 노랑이 길

울집ᄃᆞ담을너머좌우을ᄃᆞᆯ너보니후원이
심숙ᄒᆞ고다봉이우어진뒤ᄒᆡᆼ화는지ᄃᆞ도화빈발
ᄒᆞ여백학이쌍ᄋᆞ이부리ᄅᆞᆯ지어잠ᄃᆞᆯ드ᄂᆞᆫ텬연ᄒᆞ거
의회미텬길이보이더라ᄀᆞ즉ᄏᆞ을가이나ᄒᆞ여석뒤
의나되셔너ᄃᆞᆼ저벨ᄒᆞᆫ이화우되엿는되알각협
몬이젹ᄃᆞ이엿쳣거ᄂᆞᆯ돈벌ᄒᆞᆼ을바라ᄃᆞ셔벌더의
이ᄅᆞ계봉을ᄉᆞᄃᆞ아장담을너머ᄃᆞ되가ᄌᆡ우의한
각이잇더라흉월의갈으치물생각ᄃᆞᄒᆞᆫ각제일
방양ᄒᆞ나아가보니방문이ᄃᆞ오이닷쳐잇ᄃᆞ고여보희져
은쳥의홀ᄃᆞ림쳐이것거ᄂᆞᆯ칭ᄋᆞ듬으로여엿보니ᄂᆞᆫᄃᆡ차
회이엄되어잠드럿ᄂᆞᆫᄃᆡ미인이ᄎᆡᆨ상의안구엇시며
뵈나블ᄒᆞ며호올ᄌᆞ되와다리ᄒᆞᆫ얼골이어엿부거ᄂᆞᆯ
홍타을감앗시며부ᄌᆞᆼ한ᄂᆞᆫ심ᄇᆡ이안이을ᄃᆞ게ᄒᆡ시ᄆᆡ

낭ᄃᆡ을우여로인왕을쑥ᄭᅳ미양여굴ᄃᆡ강낭방초
의굴심녀의쑥심이라 ᄌᆞ랑이의아즁셩각ᄒᆞᆫ데니
쳘ᄂᆞᆫ 싱변연ᄂᆞᆯ ᄌᆞᆫ눈이세상을ᄲᅡᆯᄲᅧᆨᄒᆞᆫ여인평보ᄂᆞᆯ
티울ᄒᆞᆫ번보ᄇᆡᆫ김작ᄒᆞᆯ지니엇지져리편가인이그
려혈텽실이잇실이오다시랑즁굴크게놀ᄂᆞᆫ보니
그ᄇᆡ인이도라누오ᄇᆡ옥갓ᄒᆞᆫ랄을내여이쑤여얼ᄂᆞᆫ
다시잠ᄃᆞᆯ거ᄂᆞᆯ노랑에부ᄉᆞᆫ쳥이ᄂᆞᆫ헛던지ᄉᆞᄉᆞᆫ줄ᄂᆞᆫ블
나러불쳣ᄯᅡᆺ지보ᄒᆞᆫ다이실ᄒᆡ보니뒤여진나삼ᄉᆞᆫ뒤반
싼거두치ᄂᆞᆫ방셜갓ᄒᆞᆫ랄이졀반이아ᄂᆞ러난뒤일ᄯᅦᆫ
홍졉에ᄌᆞ록블의완연이뵈이ᄂᆞᆫ지라ᄂᆞᆫ스셜ᄒᆞ야이싸
을ᄃᆞ듸기ᄂᆞᆫᄊᆡᆼ쳬원ᄒᆞᆫ이ᄲᅮᆯᄂᆞᆫ귀울도ᄒᆞᆫᄃᆞᆺ심상련
블ᄂᆞᆫ졈이어나라일혈일서보병즐나노랑에보견
ᄃᆡ간댱이ᄯᅧ놀ᄂᆞᆯ ᄆᆞ음이ᄯᅥᆯ내여셩각ᄒᆞᆫᄃᆡ아싸

ᄃᆞ거ᄂᆞᆫᄌᆞᄃᆞ의이ᄭᆞᆫ비타ᄒᆞᆼᄌᆞ의살인하박거의
불효ᄒᆡ몬니향상증계하ᄂᆞᆫ비타니의거울ᄌᆞ아ᄒᆞᆯ다
가여ᄌᆞᆫ위하편ᄉᆞ담을지치아니ᄒᆞ오이의바ᄌᆞᆯ갈을
플ᄃᆞ몬울열ᄃᆞᄃᆞ허쇠니그네언어ᄒᆞᆯ나이타나네서
네울복ᄌᆞᄭᅦᄒᆞᆯ노언이옷ᄃᆞ칼을ᄃᆡ지여ᄇᆞᆯ낭ᄌᆞᄂᆞᆫ
놀나지ᄲᆞᆯ으소쳐낭위ᄌᆞ다니어재위동낭을주
혀지여ᄃᆡ외오니언이ᄇᆞᆫ발노랑운엇다편ᄉᆞ담에거
견대섬아와ᄒᆞᆯ임ᄃᆞᆫᄒᆞᆫ등호노랑발노선운ᄒᆞᆼ가노의
복종의쇠보견ᄌᆞ다이조소이다이언쇌노랑이업ᄃᆡ
굽난저공으로왓실끈대엇지지네ᄃᆡ울축ᄒᆡ저아
나몬엇지이ᄂᆞᆫ노랑에담ᄋᆞᆯ노선외소회ᄂᆞᆫᄉᆡᆫ이ᄃᆞᄃᆞ
소쳐낭ᄌᆞ의쳐지울침기ᄲᆞᆯᄂᆞᆯ소쳐편낭이소ᄋᆞᆯ노

당이사람을죡이재왓실진대엇지그죄졀을보
로되오쳡은쳔지간강상을무릅쓴죄인이라
무삼다른말이잇실이오노랑이란식일낭은되
소뷔는그빈도뢰도알지나나는본대나안순람이라
졀을내셔쳔누의노라감술을베베폇더니나해만으
빼본쳔이거낙ᄒᆞᆫᄃᆞ총쳥이ᄉᆞ라져서나일단강리
지성은나밧기로까도분쳔의탁셜을여실인즉보
슈하불일삼더니황각노부총훈쳔의게슉여
그롯부뫼가인을상헐번ᄒᆞ여드다셜낭이반겨
왈쳥ᄒᆞ나양쳥누의놀ᄂᆞᆫ인물이라변되기박
ᄒᆞ여강쥬의ᄒᆞ로박ᄒᆞᆯ엿다가이곳의이르니그쥬쟝
화의쳔현홍쟉이소쳥간ᄃᆞᆯ의각별을닥

지못ᄒᆞ여족모의게득죄ᄒᆞ여신ᄉᆞᆼᄒᆞ니의지이ᄂᆞᆫ
ᄃᆞ의검도ᄅᆞᆫ이절ᄅᆞᆫ지라노랑의옹셔ᄒᆞ니그르도다
노랑왈그ᄃᆡ허변낭ᄌᆞ의일홈이박셜션이어나
션낭왈노랑이언지쳥의일홈을아난뇨노랑왈
노션이어지낭ᄌᆞ의꼿다운일홈을우레것치듯ᄂᆞ
낭ᄌᆞ의빙셜지조을거울것치빗최어니황가
두부어지ᄒᆞᄂᆞᆯ을너ᄃᆞ리신을속여낭ᄌᆞ갓ᄒᆞᆫ오
조가인을이갓치모히ᄒᆞ니노션의속죵의상셜ᄂᆞᆫ각
ᄒᆞᆫ칼날이무듸지안난지라오악ᄒᆞᆫ여ᄌᆞ의ᄒᆡ을
못치검션거ᄎᆔᄒᆞ여외초ᄌᆞ뢰라ᄒᆡᄃᆞ변이ᄃᆞ려
나니션낭이엄히그ᄂᆞᆷ울붓잡아비러왈노랑은그
르므다ᄎᆔ평ᄉᆡᆼ의ᄂᆞᆫ존신다갓ᄒᆞ니엇지그션ᄒᆡ을

위하여 그임군을 해하리오 이는 억외에 잇는 줄어 알이아
나타 노랑이 만일 그 정한즉 쳔의 복이리오 노랑
의 갈을 셔술이라 미을을 맛뫼버거 석이 당하니
노랑에 한식왈 낭군은 안심을 과박불 패젼이로다
내 삼년일 검을 쾅부의 가쳐 시험치 못흔 내 심즁의
가졍 불평치 심이 깃쳐 시나 낭군의 안변을 이어 보과
못할지라 낭군은 쳔만 보즁 후쳐 연이의 나가거늘
셜낭이 젼 심랑 복왈 노랑이 만일 쳔의 녹오을 히
할진대 그날이라도 쳔의 병이 젼은 되나 그러 일나노
랑이 소왈 엇지 두말을 후리오리오 기다려 싸임의 중방
발가더라 이쇠 츈왈 노키 노랑의 오기을 기다리더라
가 노랑을 보르게 다라 우러 왈 엇지 그리 더디든

노텬기의내리을어ᄃᆡ두어ᄂᆞᆫ뇨고당이ᄒᆡᆼᄉᆞ혀
내좌속ᄌᆞ흘월의내리켜을흘어ᄂᆞᆫ이잡ᄃᆞ오속
의비속을ᄃᆞᆯᄃᆞ외부인을가도쳐벌이욱이찰시
도다가쏙거뎌알간약헌내저요약헌간비ᄌᆞ등십
도여못된바음오ᄌᆞ드거을내여음부의벌을도아오
조가인을모ᄒᆡᄒᆞ니숙홈의삼쳑비숙ᄒᆞᆯ네ᄃᆡ
회헐머ᄒᆡ엿더니쇄ᄒᆞᆫ냥의지속헌흉심을감동ᄒᆞ
여빌병을빌니거여와쳔앙이녀스되오션년지로
와쳘리ᄂᆞᆫ빅일이ᄌᆞ팀흘ᄃᆞ졍쳔이아조시ᄂᆞᆫ비ᄃᆡ
십년쳥수의일헌홍졈이쳔ᄃᆞ초뮈라니반일션
낭을다시모ᄒᆡ하여죽이되헌득네쳔반니박거이셔
도칼을갈아검션의쳐뎌되따발을ᄲᆡᆺᄃᆞ흘월을

산을ᄯᅥ나가되조상의기그ᄂᆡ왜여왈편하와지이ᄉᆞᆫ니
ᄉᆞᆫ비일을도로타나ᄂᆞᆫ본시ᄌᆞ다오조황각그만회위
시간비을처결ᄒᆞ여홍수현ᄉᆞᆯ을왜회여시비ᄅᆞᆯ
원을변복ᄒᆞ여노신을편금을모ᄅᆞᆯ거시니ᄇᆡᆼ순상
초실백생편을죽여달나ᄒᆞ여기ᄂᆞᆫ가의가션낭
외편실의엿보니션낭이죽모회현퇴인이라ᄒᆞ여
젹은외에뵈니불노남구현의샹의ᄒᆞ되ᄒᆞ의구엇ᄂᆞᆫᄃᆡ
우연이보니비샹ᄒᆞᆯ이완연ᄒᆞᆫ지라ᄇᆡ편ᄉᆡᆼ의ᄂᆞ거울
로아주다가간인의말을그ᄅᆞᆺ드ᄅᆞ하니ᄇᆡᆼ숙니가인을
실퇴ᄒᆞᆯ번ᄒᆞ여그칼노위시모며을죽여션낭의화
푼을엇시고ᄒᆡ퇴ᄒᆞ엿더니백션편의게션을감동ᄒᆞᆯ
여회지ᄂᆞᆫ이나ᄒᆡ엿시나편인이엿스되오션낭의

인이잇셔이쐰낭의무쾌ᄒᆡ불을일워가잇게ᄒᆞᆯ때ᄅᆞᆯ
쇠ᄒᆞ나ᄂᆞ니그리알나ᄒᆞ고쳐리갓ᄒᆞᆫ갈날이번ᄃᆞᆺᄒᆞᆯ
내출월은한희엿더져ᄃᆞ노랑간ᄌᆞ지엉더ᄒᆞᆫ보라
눌나보니출월이일신의육혈이낭ᄌᆞ를내두리
와그이엄더라더ᄅᆞ상의쇠여ᄂᆞᆫ뒹ᄋᆞᆫ을나일노ᄃᆞᆺ
차모로ᄒᆡ엽더ᄒᆞ이ᄒᆡᆨ외시모베스랑의거쇄을보ᄃᆞ
심볼숑수ᄒᆡ여아모리혈ᄅᆞᆯ모로더니출월의모양
을보ᄃᆞ리경ᄒᆞᆫ악ᄅᆞᆯ여밧비낭을쥭어죄로ᄅᆞᆯ내열
으ᄒᆡ휜저신병이동과이ᄂᆡ이나사람의경ᄂᆞᆫ이비ᄂᆞᆯ
지뭇ᄒᆡ이난네가본ᄂᆞᆫ라이로ᄅᆞᆯ네게뒤가되ᄆᆡᆯ
그ᄒᆡ슈연을위ᄒᆞᆯᄅᆞᆯ아랏시되오더욱그이절제
ᄒᆞ여째번제그의ᄒᆞᆫ번도일우지못ᄒᆞᄃᆞ여이외

안츙졍을ᄉᆡᆼ각아츙쳐ᄒᆞ다가ᄌᆞᄌᆞ아ᄅᆞᆷ답
지어ᄂᆡ괴복이도라옵어ᄂᆞ니옵볼히ᄂᆞᆫ못고렴져여
네ᄒᆡ온결연조션ᄂᆞᆼ온네올쉐갈의연시피이ᄋᆡ별
우리모녀몬ᄌᆡ죡어이모로ᄌᆡᄒᆞ다시일게올ᄉᆡᆼ각
ᄒᆞᆫ츙원올뎡ᄯᅥᆼ갓ᄭᅡ이수이ᄂᆞᆫ각ᄀᆞ의ᄌᆞ뎌오ᄆᆞᆯ기
다ᄒᆡ와시모녀시ᄅᆞᆷ올ᄒᆡ여ᄒᆡ로보ᄂᆡ믈이엄거ᄃᆞᆯ
가뇌속ᄉᆡᆼ이여져ᄇᆞᆫ외ᄅᆞᆯ복인온어더블안ᄒᆞᆯ나워
시ᄒᆞᆫ별ᄉᆡᆼ증은실노지ᄂᆡᄂᆞᆫ어두온가졍이ᄂᆞᆯ다
일ᄂᆞᆫ실지네외아칸ᄒᆞᆼ과올모ᄅᆞ시엇너가가뇌평
봉월목상ᄒᆞᆼ과ᄒᆞ온쉬이ᄲᆞᆯᄌᆞᆯ과위시ᄒᆞᆫ원올가
와ᄒᆡ월ᄒᆡ거ᄉᆞᆯ볼ᄒᆞ쇠ᄌᆞ뇌ᄒᆞᆫ몽ᄒᆞᆫᄂᆞᆫᄋᆞᆯ흔서또
ᄒᆞᆫ쉬이봉어ᄎᆔ와코이엄ᄂᆞᆫ지리각뇌실ᄉᆡᆼ각ᄒᆞᆯ쇠

로도셜ᄒᆞᆫ기을통시의구ᄒᆞ여온ᄌᆞ리어쳔낭을
좃이ᄒᆞ혀갓다가쳔낭의무죄ᄒᆞᆷ을알그로도ᄒᆞ혀황시
모녀을ᄒᆞ뢰ᄒᆞ뢰왓노라ᄒᆞ더다ᄒᆞᆫ은이엇지ᄒᆞᆫ기의
보아ᄒᆞᆫ데고ᄒᆞ이리오이졔ᄌᆞ리을보게ᄒᆞ여그옷슬알
은즉쳡의모녀을엄시ᄒᆞᆯ게시오불ᄒᆞᆼ이일우져
못ᄒᆞ고흉악ᄒᆞᆫ쳡의모녀의게ᄒᆞᆷ믈을쓰이고져ᄒᆞ
ᄭᅴ니이야작괴ᄎᆞᆫ연을듯고ᄃᆡ졔ᄒᆞ여일변범부거벌그
져ᄒᆞ며일변황상게ᄌᆞ달ᄒᆞ며쳔낭을ᄒᆞ뢰ᄒᆞᆯ글져ᄒᆞ
니위시만ᄒᆞᆨ뢀며일은상운이쳔낭의얼노그당ᄒᆞᆫ외ᄂᆞ
듯여얼위저봇ᄒᆞ며ᄃᆞᆯ은연ᄃᆡ이여라그ᄂᆞᆯ숨이ᄒᆞᆫ변되지
못ᄒᆞ여고ᄃᆞᆼ이시고도알아보더와심을내리이졔상공의
ᄎᆡᄒᆞᆼᄒᆞ시보로구ᄒᆞᆯ되을두번ᄌᆞᄃᆞᆯᄒᆞ여어불가ᄒᆞᆫ나

디ᄉᆡᆼ에ᄃᆡ욀ᄃᆡ빈간ᄃᆡ의죵졔이온일을ᄒᆞᆫ나졍영이잔
지못ᄒᆞᆫ져라그거가보게ᄒᆞᆯ일을앗나보ᄒᆡᆼ가ᄂᆡ곳일을
편인일ᄇᆡᆨ셩쳔의간ᄉᆞ히이신ᄂᆡ울둑아으로살히ᄒᆞᆫ뒤
히울ᄌᆡᆨ의신이ᄐᆞᆼ편의양ᄒᆞᆯ듯이잇ᄉᆞᆫ뎌ᄂᆡ기서공
논이신이ᄉᆞᄃᆞᆯ모히ᄒᆞ다공논이잇셔ᄉᆞ오나신이박속
ᄒᆞᆼ관의쥬ᄌᆞᆼ부ᄂᆡ의쇄계ᄒᆞᆫᄉᆞ졍으로쳔평의편득
을오리가ᄇᆡᆨ셩쳔의간ᄉᆞᄒᆞᆫ일은가강부ᄂᆡ의독거ᄒᆞᆫ
후잇다ᄒᆞ나ᄃᆞᆯ다리ᄉᆞᆫ가졍히이ᄒᆡ온일이ᄒᆞ위쳔
ᄒᆞᆫ다울괴로ᄋᆞᆯᄇᆡᆨ셩쳔은별반ᄒᆡ치히으ᄉᆞᆫ족인을졍게
ᄃᆞᆯᄉᆞᆫ쳐ᄒᆞᆫ다이쳔낭이보기다ᄒᆡ인ᄂᆞᆫ으로토ᄒᆞᆯᄒᆞᆫ일이
옹어되게ᄒᆡ이였나이다 상이진ᄌᆞᄒᆡᄉᆞ왈이일이인가
대ᄇᆡᆫ이라ᄒᆡ신어셔족왈쳔을곰의부조가ᄂᆞᆫ비울을
ᄃᆞᆯ나이다 상이이욱이ᄉᆡᆼ각ᄃᆞᆯ사ᄃᆡ이운곳ᄒᆡᆺᄂᆞᆫ

따그라조이혹벽을닷ᄉᆞ므로믈니흡히여양지라아
재젼냥으로쎄본향의잘가잇셰리신히올싹당
이여게ᄎᆞᆨ을생쥐이의국권를시여싹영이냥혈을
보아젼줄리이여허ㄷ최로를여방북로가양가보로
냥복로운니라

춘월번복산타양 우작이쉬다시건가

최시황작거상변을ᄇᆞᆼ근와젼냥혹이라못ᄒᆞᆫ니ᄀᆡ
흘나아삭다힝히문쥐본향으로축줄허변묵젼
분쥐물로굴거시너냥ㄷ이혹시보니되타흘ㄷ급히
냥복조의와난궁을보ㄷ셩지물젼허여발그ᄂᆡ엄
의황변을반ᄌᆞᆫ와왓시너쳔기을츅홍펀후
조라가피라허여울가ᄂᆡ쇼와쉬조평원을차
대ㄷ황시양쥐그뢰쥐시비홍차을인돈쿄대쥐시므ᄅᆞᆯ

져하니엿연은도은쟈조흘도되기나당은이
배당의드러가셜낭을불너엿쓸게근여쥴지녀
가로을진쳥좌못하고염려여츈쥴실어신셰지로와
지죽송황이라아각ㄷ한의가잇다가아는외회은
헌혹쳐죄쳐이엿실이하쳔낭이구속을홀너감
히우쳐ㄴ람지못하여다이허복인라쇼체차야흔물
어거지못겨삼뉘즐혀여힝나을지휘혀여열낭쇼
거의속디칭투와소쳥을솟게쥴나젼낭이제하와
셔하직혀비우히낭빈을젹시어오조련혀거나
화일은지흘우뫼져즐듯싯뫼바람을만난듯쳔연작
조헌혀되견츈즐고이케러ㄷ새애일은돌을너라이날낭무
상혀혀어나눈물과리오뫼로뢰는빌이웃지아어쥴너
눌황낭부시아들도구름갓퇴므여람아보지

것치과야 ᄒᆞ엿더니 이날은 이길이 엇젼 길에노 장쳐
비복모 본 보롱 ᄌᆞ시 영ᄂᆞ니 어ᄃᆡ 울지 ᄒᆞᆯ 줄 ᄂᆡ바
ᄃᆞ갈이 오네이 곳술 어난져 ᄭᅩᆨ별이 못ᄒᆡ여 다시이
양오로 도라가 인ᄂᆡ울 빗그ᄭᅴ 와엿져 ᄃᆡ흐ᄃᆡ 이변ᄉᆡᆨ
에 부어신 나라쳐인이라 ᄒᆡ변 나라의 ᄃᆞᆨ쳐ᄒᆞᆫ 일을 엽
ᄃᆞ쏘훌 복라 ᄒᆡ쥴ᄌᆞ 벤군ᄌᆞᆫ의 본의 이간 젼ᄒᆡ 힝장
이항 현ᄀᆞᆺ 시연ᄂᆞᆫ지라 졀ᄯᅡ하 이 곳의 ᄋᆡ 존결 ᄌᆞ에
쳔ᄒᆡ거 손ᄯᅢ되라 ᄒᆞᆫᄃᆞ 항ᄒᆞᆼ의 젹은 칼을 ᄂᆡ여 ᄌᆞᆫ
의ᄌᆡᄃᆞᄂᆞᆫ 물에 비오ᄃᆞᆺ ᄌᆞᄂᆞ소 쳔이울 ᄂᆡ쌀 ᄂᆞᆼᄃᆞᆼ의
빙셜갓ᄒᆞᆫ 마음은 ᄌᆞᆼ쳔이 아ᄅᆞ시ᄂᆞᆫ 빅일이 조림ᄒᆞ
시ᄃᆡ여 이ᄌᆞ의 ᄉᆡ불ᄒᆡᆼ ᄒᆞ신ᄌᆞ 이ᄂᆞᆫ 견인의 소원을 닐
워ᄌᆞᆨᄃᆞ ᄂᆞ병을 신셜ᄒᆞᆫ 날이 셩ᄉᆞᆯ 어이 ᄎᆞᆯᄒᆞ

되이만휘승당ᄒᆞ량을혼ᄌᆞ의탁ᄒᆞᆯ사ᄅᆞᆷ을기
다려살지나엿지ᄂᆞᆫ바이런거조을ᄒᆞ여서리오쉰낭이
흔왈ᄌᆞᆼ박ᄒᆞᆫ인ᄉᆡᆼ이갈ᄉᆞ록ᄌᆞᆫ박ᄒᆞᆯ너ᄆᆞ엇ᄉᆞᆯ기
다되ᄇᆡ어ᄂᆡ뎌을바라되오ᄂᆡ어ᄌᆡ이심이못되엿시
니차ᄉᆡᆼ의ᄉᆞᆫ작이이엇스나편거ᄋᆞᆼᄒᆞᆯ하ᄂᆞᆯ이좌ᄌᆞᆨ
사ᄅᆞᆷ의헌화ᄇᆡᆼ을버셔ᄂᆞᆯ길이업슨니ᄒᆞᆫ번ᄌᆡᄂᆡ어ᄌᆞᆨ
여보로ᄂᆞᆫ나ᄲᅮᆫ갓지못ᄒᆞᆫ다마소쳥이ᄃᆡ왈쳔베ᄂᆞᆫᄃᆞ로
내굴ᄌᆞᆫᄂᆞᆫ의아ᄂᆞ여든ᄌᆞᆨ지안ᄂᆞᆫ가ᄒᆞᆯ오나낭ᄌᆞ의금일
이거조ᄂᆞᆫ의되을ᄉᆞ베아지못ᄒᆞᆫ낭이더범내ᄌᆞ의ᄌᆞᆨ기
두가지라어되서부모을위ᄒᆞ여ᄌᆞᆨ운ᄌᆞᆨ이ᄂᆞᆫ호힝이
라들ᄃᆞ드ᄅᆞ와기복을위ᄒᆞ여ᄌᆞᆨ오변이ᄂᆞᆫ쳘ᄒᆡᆼ이라ᄒᆞᆯ
거니와이ᄌᆞᆨ거저의의ᄌᆞᆨ으변어운음녀ᄌᆞᆨ부의견이야편
힌실이니낭ᄌᆡ엇지이을모르시나니자해보ᄂᆞᆫ니오리

시공이가즁흔병을보로시되가희가로시는벌운이
소물을드로시뢰너술즐다그심은업더더시기이가
각침각상와이복연의길병을헝각호소금쳘헤상의
홍도디울보내드암연을황홀드소혼단장허물낭지
아로내려션즉도라가는헝녕이라드반드시위홈여
칠드방황홀여헝즁을황아뽄치지못허시여너와
서울영즁여비록왕슨을귀웃치너여지못홀드흔
혼단을주허나엇지못허시기이다빌이잇지못헌낭
이두어줄는불이나허울소헝아내날을고로즁비아
너나죽지못허물헌허라이와졍즉을불너와낭은
나양사람이라연일디양의봉히불지흔나이근쳐
의영헌뎐부체잇실진키한번드잉즁여거도헌강
쳐희는나갓가온즉의승영이아드련이나승당이잇

거ᄉᆞ를 쳡의 죄에 내시ᄂᆞᆫ 이ᄂᆞᆫ 죄ᄒᆞ시니 이ᄉᆞ 몬 영ᄒᆞᆫ
이라 셜낭이 죄ᄉᆞᄒᆞᄂᆞᆫ 이의 ᄂᆞᆫ 취ᄒᆞᆫ 동ᄒᆞᆫ 후 창ᄃᆞ거
쟝을 ᄃᆞ를 내 보닐셔 을 소쳐 거일 봉셔을 부쳐 삼
국을 ᄃᆡ강 거벼ᄅᆞᆫ 줄 나라 셜시의 ᄒᆡᆼ층이 낭부의
셜낭을 ᄎᆞᆨᄎᆞ를 ᄒᆞᄂᆞᆫ 본 부의와 부인ᄃᆡ 네 아울 보ᄃᆞᆯ
노ᄇᆡ 오날이야 네 안ᄒᆞᆫ 셩을 엽시ᄒᆞ여ᄉᆞ ᄃᆡ즐 내
셜낭을 강ᄎᆞᄎᆞ 보내ᄂᆞᆫ 은 빗을 현제 부인이 ᄀᆡᆫᄉᆞ 월
ᄌᆞᆨ은와 모짐 즘셩을 ᄎᆞᆨ이지 못ᄒᆞᄂᆞᆫ다 ᄂᆞᆫ 물 내여서
니이 도조ᄒᆞᆫ ᄎᆞᆨ환이라 줄내 가의 ᄇᆡᆨ당에 더ᄒᆞ와서 견
비울 ᄒᆞ리ᄂᆞᆫ 지 즉즉 효ᄒᆞ여 상쳐ᄂᆞᆫ 나 하셔 상의 병
진리인 이련지라 출월이 거울을 ᄃᆞ어 쳐 얼굴
을 보다가 나을 갈아 ᄇᆡᆼ쇠와ᄂᆞᆫ 젼일 벽ᄒᆞᆫ 셜

은소져의젹국이요증셜쳔낭은출월의물은
공계현지숙히결연코이왼숙ᄂᆞᆫ갑ᄂᆞᆫ발니라의게
시탄일월쳔기강죽호가텅안이누엇다가생낭에로라
오별자연일이되기치되니우희모너노죽외셜병이
엇지되물얼너요롤윌이되월부연은근심치아
로호쇠현비ᄇᆞᆫ쇠고거쇠울연후셜쎄울다시술
이다허더라이쇠순현윌산왼울다ᄒᆞ순ᄂᆡ황뒤회
공연가셔울신화양의보게순거로중라흘산디가시
중인이산화양의나가싱흘연등줄ᄃᆞᆫ빈쇠울흘
왼테ᄂᆞᆫ불순울밧친후엄총울두로조타주경ᄒᆞᆫ다
가현낭의휘소의와모ᄂᆞᆫ울열ᄂᆞᆫ쇠현대여승이ᄃᆞᆫ왓ᄂᆞᆫ이
곳롱리실이라보피발으호쇠고지이심어리방ᄒᆞᆫ
커ᄂᆞᆫ낭힌ᄂᆞᆫ거슬로아ᄯᆡ나ᄂᆡ이더라커연비슬열ᄂᆞᆫ게남

안즈며왈형은이압즁의긔즈쳐라앗더니
졔낭즌을만나조타니션은가서라낭즌의꼿다온
질다아름다온용랑을보뇌외보지십ᄇ이일즉
이천ᄒ둔바갓조다아지못케되낭즌의지현형시는
묵어시며꼿다온ᄒ변이언마나되시니가쳔낭이만
기는계석이여쇠왈형의셩조가서라현쳔나흔
심늑세조초이다계즁인이다유반져왈동생져찬
은빅계피친이라니오날조타가져꼿혈지나밧뎡
이밤을갓처재내파라줄는세내초든러형구을마
져오파는여쳑티을갓쳐ᄒ나쳔낭이여시는쳑ᄒ
게이다가가서의슉질ᄒ육의을감츤들에서조은훈랑
화현내그나이내드는나즌뉜이갓는재염이자는이나쌤을
회는철가지라심무을드도회재연이나은곤현졔ᄒ회을

내져타쳔낭의연여준젼이범샹되여보물본지앙
내복져볼내임의홍셩자의잇쳐즈변이나ᄭᆞᆯ삼더라
젼의아강지연너퇴올낭즈의와모방졀을보니샹
샹텬여탕소탐이아나타여지이즈의와흘이잇는다
심쪽을거이지ᄭᆞᆯ나셜낭이그여평히께복로물보
드비룩조쉬이ᄭᆞᆯ대몬불가쥴나다로이숙이미의야
파귀강ᄭᆞᆯ쥴여보ᄅᆞᆯ쳥은본나야양연은로부모친쾌이
념드가홍환난올ᄭᆞ나일실의타여영슨드로이곳의
ㄷ지히여시어쳥이배홋나이여퇴나폐슨올열녀더
뷔로쥬인셩이복비드녀라슨거올보아연발본신드며
운녀든슨올츤자불드좌히나이다연마의일씨형연와
누쉬여퇴거셕이퉁담히드거온이강리회여실

엇지이르키오혀더라ᄒᆞᆯ일이나가니생각ᄒᆞᆫ
뎌우몰ᄅᆞ게을바라의노앗ᄂᆞ니어데을지ᄒᆡᆼᄒᆞ리오
네ᄃᆞ토니만셰고소ᄒᆞ의랑현셩이쳠ᄉᆞ을이신통ᄒᆞ다ᄒᆞ
니게가물어보리라ᄒᆞᆫᄃᆞ숙낭은주을마지ᄂᆞᆫ장현셩
을ᄎᆞᄌᆞ보ᄃᆞ몬복ᄒᆞᆫ나현셩이ᄂᆞ유이괘을더져발ᄒᆞ며
월졍언의부술을네심은지흉측길ᄅᆞ고져ᄒᆞ순인
간ᄌᆞ쳬고져ᄒᆞ시니라이졔ᄒᆡ샹을보니금년신ᄎᆞ
졔ᄃᆞᆫ불길ᄒᆞ여셤볼조심ᄒᆞᄂᆞᆫ남하졀의파쳑지말
나비독숙인이라도감화ᄒᆞ변은인이되나니라ᄒᆞᆫ일
이소왈현셩은긴말을졍ᄃᆞ야ᄂᆞᆫ고간ᄉᆞ슐지시ᄒᆞᆫ소셔
ᄃᆞᄃᆞ온ᄃᆞᆫ을더듸현셩이갈오ᄃᆡ그내여쳐옴ᄃᆞᆫ낭으
로가야가다시길을돌여복으로왓시니만일신중의
ᄎᆞᆷ리더ᄃᆞ면반라시ᄀᆞ쳐더셔티파ᄒᆞᆯ일이다시못ᄒᆞ리

등에오다가 길외쉬가 중인시비우셤을 만난네를
월닐은낭이어뎌을갓다보는다우셤이를웬외복
석라얼굴이아도모조관작아라보져꼿줄너당거
아난데홀웬이소일나는그손이다질굴얼굴이볼
나보게되엿시나반쇄고아뒤외원이잇다ᄒᆞ기보론오는
길이라병중죽근중혈가낭복을입엇더니가장우슬
도다온낭은홀보지말울셤이바야흐로아리로드올낭
은무삼병이러갓져드되낫초출웬달이아나의신
속라연이아어디을갓던다온셤왈우리낭ᄌᆞ병으로
산화암의갓다오노라홀웬왈산화암은무산일갓
더노셤이답ᄒᆞ여왈젼우리낭ᄌᆞ이암ᄌᆞ의가셧다가
일디낭ᄌᆞ을맛나소동셩지친이라즈손조변여

소씨셜낭은일졍현네ᄌᆞ되심곡을도셜ᄒᆡ아나
ᄒᆡ오되네현비가보ᄂᆞᆫ셜계ᄌᆞᆯ손이다ᄌᆞᄂᆞ익일홀
월이일ᄃᆡ국산리와꼬앙으로황ᄌᆞᆫ을타산ᄒᆡᆼ양의
이르러일이더셰ᄃᆞ가불ᄒᆡᆼᄒᆡ나여ᄒᆞᆫ이일갈리
실을원ᄒᆡ여죽거ᄂᆞᆯ밤ᄃᆞᆫ후기아나와두로ᄒᆞ니
내ᄌᆞᆫᄌᆡᆨ을ᄃᆞᆺ보더니방ᄋᆞ다송경념불ᄒᆞᄂᆞᆫ소ᄅᆡ나
더니동편일간방이잇ᄂᆞᆫ불그림셰회ᄂᆡᄌᆞᆫ기ᄂᆞᆯ로월
이챵을ᄯᅩᆯ프보니일ᄃᆡᄂᆡ인이ᄒᆡᆼ벽ᄒᆡ여누엇사니
이몸두셜낭이라가아나ᄀᆡ실의ᄃᆞ리와의일ᄂᆡ병와
졔ᄋᆞᆫ을작별ᄒᆞᆫ부롱의ᄃᆞ리와ᄃᆞ혀니ᄂᆞᆫ부가롱이
깁ᄃᆞᆫ김혀ᄒᆞᆯ월이ᄎᆞᄃᆞᆫ을ᄃᆡ꼿ᄃᆞᆫ더ᄒᆞᆯ이로으소
셜낭노쥭을져욱의너어셰니어졔봉졔쉬을

뎌이셔 무뢰지배라 범범ᄒᆞᆫ 부쇽을 쳐 갈 줄
여졍ᄇᆡᆫ을 곳치ᄂᆞᆫ 방낭ᄒᆞ여 ᄃᆞᆫ녀 ᄯᅥ이ᄂᆞᆫ 운심ᄒᆞᆫ가
의쳐ᄒᆞᆯ ᄇᆡᆨ으로 ᄃᆞᆫ녀다가 홍경을 ᄆᆞᆫ나셔 조ᄎᆞᆫ을 잡
아다셔 쥬가로 가ᄉᆞᆯ ᄲᅡ실셔 홍경이 탄왈 남의게
샹의 낫다가 지쳑여 절치가 인을 두ᄂᆞᆫ ᄎᆡ 되ᄂᆞᆫ 못ᄒᆞᄂᆞᆫ
너엿지 본쳐 ᄋᆡᆼ이 ᄒᆞ려 ᄋᆞᆫ 우격이 ᄎᆞᆫ 연을 두ᄂᆞᆫ 못거ᄂᆞᆯ
홍경왈 대 곳지로 ᄋᆞᆼ되 못ᄒᆞ니 금안의 니 경으로
라 우격이 ᄋᆞᆼ낙ᄒᆞᆫ 횡흉을 ᄒᆞ여 ᄌᆞ쳐 가ᄂᆞᆫ 홍경이
우격의 손을 잡아 안치ᄂᆞᆫ 소왈 ᄇᆡᆨ공을 위ᄒᆞ여 ᄯᅥᆯ지
경ᄉᆞᆨ지ᄉᆞᆨ을 통ᄒᆞᄆᆡ ᄒᆞᆫ 되니 공의 ᄉᆞᆨ단이 ᄎᆞᆫ ᄒᆞᆫ 여셩ᄒᆞᆫ
치못ᄒᆞᆫ가 ᄌᆞ쳐 두ᄂᆞᆫ 니라 우격이 될다 ᄲᅡᆫ 발ᄒᆞᆯ 라 홍경왈
드ᄅᆞᆫ니 강쥬 ᄒᆡᆼ슈의 ᄎᆡ 일ᄇᆡᆨ이 있어 ᄋᆞᆯ지

화룡이복셩이라가부통치당셰의죽부
흘다흔나한번휭기미월나라셔시는그롯혀블
붓그려흔한번우으미병왕의귀비그실흔통텨블셔
거혜난비인을눈이여자쳬도본허리온우져이깡
운손을별쳐왈흔젼의흡정젹을쳐쳐이남아
아부리비약을근아흘나네블다화가노의노슉
으로날을눈나흔는다강최가여쳐변닉젼비강
쳐태일망황누을발흘흔다흔젼이역느닐슉
담의총꾀을그릇혀변셥쳬번빗좋은인거니와나
의홍국과담을토괴안군이갓치흔나더시말홀
자안이되화우젹이우여왈그려할젼쳬발출치상
비록몰ᄂ되려제화 홀젼이여소흘ᄃ우젹다쳐을
이제그미인이황영의왓다가기는슨변을일흔스ᄅ배롤

낭을잠즁의불너죽을발키ᄂᆞᆫ셔외쟝념
들여왈기낭으로반년을롱젼의ᄃᆞ로갓쳐거거
하날이도으ᄉᆞ승쳔ᄒᆞ여버리다가로죽게ᄒᆞ올것치ᄒᆞ온여
ᄒᆞᆫ가혈가ᄒᆞᆯ엿더니이제황ᄇᆡᆼ이쳥ᄒᆞ여옹이
제길을난호와나ᄂᆞᆫ병일황셩으로가나낭은을
ᄉᆞ울ᄌᆞᆼᄯᆞᆼ독ᄒᆞ여죽이엄군즁ᄃᆞ로자온게ᄒᆞᆯ리라홍낭
이쥰연을듯ᄃᆞ눈을드러엇죽의거셕을살키며눅
빈홍쳥의눈물이졈ᄃᆞ이나려발이엄거늘ᄐᆡ숙쳥
셕왈창국이비독을보ᄂᆞᆫ나슈졍을죽ᄒᆞ여근
병을거ᄉᆞ리지아닐지라낭은밧비회장을차려
라홍낭이ᄉᆞ혼을거ᄃᆞ죽은연ᄃᆡ왈쳥이혈ᄃᆞ여거
포변ᄒᆞᆫ군즁의황쥐ᄒᆞᆫ여갈울잠ᄯᆡ득여황졔으ᄅᆞᆯ랑

헐ᄉᆡᆼ아니라 홍모소져의 안위ᄅᆞᆯ ᄂᆡᄂᆞᆫ 죽기가 ᄒᆞᆫ
ᄲᅡᆼ의 종ᄃᆡ 비ᄅᆞᆫ 난연리라 이제 남방에 절원
즐여 왕ᄒᆡ 미ᄌᆡ 못ᄒᆞᄅᆞ 홍숙이 출ᄌᆞ 미ᄂᆡᄒᆞ여
조젹이 ᄌᆞ조 이ᄃᆡ 나나온 ᄒᆡ조 ᄅᆞᆫ니 ᄇᆡ위 두조로
련ᄒᆡ(ᄂᆡ) 종셩ᄒᆞ 살ᄃᆡᄅᆞ 일ᄂᆞᆫ 젼일ᄂᆞᆫ ᄒᆡ지 안ᄂᆞᆫ 흑
텽젼ᄒᆞᆫ 날은 이엄ᄒᆞᆯ 저라 ᄒᆡ혼 이제 홍ᄒᆞᆫ ᄒᆞᆯ
노ᄀᆞ ᄐᆞᆫ거ᄂᆞᆯ 즉순 홍도주ᄋᆞᆯ 치라 ᄒᆡ시ᄂᆡ 그셜
의ᄋᆞᆯ 아지못ᄒᆡ나이다 홍도주가 야ᄋᆞᆯ ᄃᆡᄒᆡ 흑
낭치못ᄒᆞᆫ 실ᄒᆞ러시ᄆᆞ오 ᄒᆞᆫ홍ᄒᆞᆫ 달의 위인ᄋᆞᆯ ᄃᆡᄒᆡ
시험ᄒᆡ지 못ᄒᆡ신 ᄇᆡ여 ᄒᆞᆯ거 연이 종엄ᄋᆞᆯ ᄲᆞᆺ지
소홍ᄋᆞᆫ 안위와 죽기 ᄒᆞᆫ ᄇᆡᆼᄋᆞᆯ 의실ᄂᆞᆫ 간의 광시ᄒᆞᆫ시
나신이 엄ᄃᆡ여 셩각ᄒᆞ건ᄃᆡ 의혹ᄃᆡ 물이 거지

나되시믈아ᄂᆞ감ᄒᆡ즁지쳐못ᄒᆞᄃᆞ남북난위나
과ᄭᆡ달이황셩의ᄃᆞ되가현근ᄀᆞᆯ몰을ᄲᅡ뎌되니
상이엳슉의됴본을보셔ᄃᆞ뎨열ᄒᆞ사황을낭각
ᄂᆞ울보시며쳥쳔ᄒᆞ슌별쳥슈은우슉진홍뎨이
이것ᄒᆞ니엇지ᄌᆞ뎍을근심ᄒᆡ리은ᄒᆡ시며ᄭᆡ달노
우림장ᄌᆞ을네ᄒᆡ슌츅ᄒᆞ셔회평게ᄅᆞᆯ타셔다시의
졀낭이산화양의ᄃᆞ락ᄒᆞ여낙리ᄇᆡᆫ내슌을쳥ᄒᆡ여
불졍을ᄃᆞ드며밤이ᄇᆡᆫ불한ᄃᆞ츄ᄒᆡ여쇄졉잇ᄂᆞ
일션이쳥평한가ᄒᆡ여잇ᄃᆞ뎌ᄒᆡ나엇지못ᄒᆡᄃᆞ발
ᄃᆞ뎌ᄒᆡ나ᄭᅡ지못ᄒᆡᄂᆞᆫ바ᄂᆞᆫ앤네의ᄌᆞᆫ졸을ᄉᆡᆼ각ᄒᆞ여오
뫼의경ᄂᆞᆫ현란한이한ᄌᆞ각안심히라일양ᄂᆞᆫ사황을
지여ᄉᆞ봉비몽강남왼쉬우층을타ᄃᆞ여되ᄅᆞ

가ᄂᆡ션낭다려왈상졔명을밧ᄌᆞ와남방의
오여을광으라가노라ᄒᆞ거ᄂᆞᆯ션낭이갓쳐가게
을쳔쳔뒤왼쉬션흐혀을ᄂᆞᆯ희여올으라ᄒᆞᆫ니
션낭이졍ᄅᆞ궁듕의올으혀ᄒᆞ다가더텨졍ᄂᆞᆯ
나쉬졔나꿈이심이별병듄ᄅᆞ불길ᄒᆞᆫ지라ᄂᆡ승
을쳥ᄒᆞ여일으되ᄌᆞᆫ일븐셔블길ᄅᆞᆯ니블젼의
쳥화을뎌텨거도고져ᄂᆞᆯ그ᄒᆞ니ᄂᆡᄂᆞᆫ왈삼ᄌᆞᆫ블은곤
비을ᄌᆞᆨ장ᄒᆞ시나인간화복은삼왕이웃듬이샤
ᄂᆡ강마쇄실을갈ᄌᆞᆫ셔삼왼쳔거도ᄌᆞᆫ호셰셜
낭이복녹ᄎᆞ졔ᄌᆞᆫᄃᆞ삼왕쳔의ᄂᆡ로러가셔비젹
왈쳔쳔벽쳥션은졀션의죄롱ᄌᆞᆫᄂᆡ근ᄃᆡ을
다져못ᄂᆞᆯ고이셩의심리팔낭을감촉ᄂᆞᆯ은나가

브녕쾽곡은네 고 본룡의 숙호ᄒ기 산ᄒ올
허여쳔지산녕이발도서고속부을나리실뵈라
환병으로변니뫼엇순운복원실왕은간라ᄂ미
의침식이여상출ᄃ시셔룡진의져뵈소별후
복칭쳔케쳬조를소쳐져ᄃ부숙비돼를ᄃ도라쳔
본의나제내숭이ᄃ왈금야얼골랑이아롬다온네
되셔되의올나섬쾌을소칭ᄒ을소셔쳔낭이비록
깃거아니나내숭등의빌을달ᄂ세저못소쳔을다
데ᄃ내숭으로셕뒤의올우ᄂ내숭등빌이ᄋ페ᄂ녀리아
내나청병히ᄂ골이ᄃ밤여ᄒ평산이병나바라보인다
들더라쳔낭이변내남쳔을바라보아상연에눈물을
날이여내숭오늘남방을향ᄒ여져기치울ᄒᄃ시ᄃ니
가쳔낭이쟝ᄇ왈나ᄂ남방순랑이라조현심여

쥐챵즁ᄃᆞ대ᄡᆞᆯ을ᄡᆞᆺᄃᆞ저못ᄒᆞ여동국의화랑
이조오히며셤여리ᄒᆞᆫ져쌍군젹당즁여암즁을오
환ᄀᆞᆫ즁여일제이달아ᄃᆞ니ᄂᆞᆫ둥이ᄅᆡ광월이반
시자강도의물이로다ᄒᆡ네쳔도이나ᄒᆡ가니그ᄒᆞᆫ져홍
악히초리ᄒᆡ여왈가냥ᄃᆞ리실을찻니ᄃᆞᆯ셜냥이소
청다려왈이ᄂᆞᆫ우리노쥬의여인이ᄢᅵ젼ᄂᆞᆫᄢᅡ간
인의동쟈를이려ᄂᆡᄢᅵ라소쳥ᄒᆞ여셜낭을븟드ᄅᆞ
울ᄂᆡ여왈ᄎᆔᄒᆞᆫ의게ᄒᆡ여ᄎᆞᆫ증ᄂᆡ어지ᄋᆞ쥬이쥭
으뢰잇가셜낭이여러ᄒᆞᆫ왈ᄌᆞᆷ악ᄒᆞᆫ네져비루ᄃᆞᆷ방을
나욕ᄒᆞ에더ᄒᆞᆯ거라엿지화ᄅᆞᆯ변ᄒᆞ리오소쳥이울
ᄂᆡ왈일이즁ᄒᆡ니여쳐치ᄒᆡ여보ᄉᆞ이다ᄒᆞᄃᆡ셜낭의
손을잇글ᄂᆡ며왈다ᄃᆞ니져갈셰얼이ᄇᆞᆯ그나길이회

이북됴갓든져뫼셜낭이볼며연즈비란앞을이엇져
죡은니빈갓져못테도다소쳥아나는셩즈울지져
은선즁엿다가나선체을거두어원숙의되준테시
는길가의뭇어빙부신일쳔셕을데신테지을키
변네의칼을네여자문크쾌테나데기셜낭이낭복
의져나올젹의임의칼을품의감쵸아소져볼텡
흔변즌쳬고쾌테니데라소쳥이텽빙이칼을앗은말
낭즌는지테셔두져까시ᄒᆞ소예세울보아불텽텰진
데쳔비홀노살나잇ᄂᆞᆫ테ᄂᆞᆫ살펴보니심의뫼의내
테대조되엿거ᄂᆞᆯ광간쉬며도빙교져테데나퇴당
이뫼을더연테나펴그리ᄇᆞᆫ겨숙북숀에의흣더소탐을찻
져오배숙ᄒᆞ물을뒤지ᄆᆡ오는져라셜낭노ᄅᆞ기다셔

이러나 흉게을 괸ᄂᆞᆫ 대로 ᄀᆞᆺ초 승보을 ᄒᆞᆫ
허뷔 도젹이 임의 산을 너머 ᄃᆞᆼ허ᄃᆞ 나뎌 오며 대로
볼 곳ᄎᆞᆫ ᄊᆞᆺ츤 오기ᄂᆞᆫ 오평이 션낭을 안ᄃᆞ 끼을 외업드
여기 혈겔ᄂᆞᆫ 엄스며 하날을 불너 방셩ᄃᆡ곡ᄒᆞᆫ여
왈 유ᄃᆞ 창쳔아 엇지 이디ᄃᆡ 죽게 ᄒᆞ시ᄂᆞᆫ 노ᄒᆞ ᄂᆡ
울더니 문득 ᄲᆞᆯ 즙소ᄅᆡ 나며 우레 갓ᄐᆞᆫ 소ᄅᆡ로 크
게 웨여 왈 도젹은 닷지 말나 ᄂᆡ의 칼이 인평이 업ᄉᆞ
니 셔텹ᄒᆞᆫ ᄃᆡ 되라 허니 눌 쌴 낭ᄌᆞ 졔 보니 일원대장이
뭄의 젼포을 입고 손의 장창을 들고 도젹을 ᄊᆞ호
니 그 ᄂᆡ회 십여 병 강호 일운 ᄉᆞ셔 각ᄀᆞ 베ᄉᆞ을 벤
드져 일쳬 이 낭텀ᄒᆞᆫᄃᆞ 쟐으니 그 ᄃᆞᆼ혀 이 장슈을 디
젹ᄒᆡ되 ᄒᆞ니 그 장슈 그계호텅ᄒᆡᄃᆞ 창을 드러 한번

쏠으며조젹의얼골이상ᄒᆞ여신변으로조빙을내
그장쉬빨을들너오러늘썬낭느쥐더욱겁네여
썰네야모되털들물으며내그장쉬갓가이와빨
을벗독ᄂᆞᆫ바상의셔부허왈엇더ᄒᆞ신복인이부삼
국졀느이갓치젹막ᄒᆞ여왓ᄂᆞ뇨우난노제도젹은엇지긍
ᄒᆞ여여빵나제시노네베득러지엽스니의기울
조아ᄒᆞ여곱터물주레그레ᄒᆞ나목인심아타겁거
지빨ᄂᆞᆫ순변을빨허라소쳥이더욱겁네여셜여빨
을해지못ᄒᆞ니그장쉬웃ᄂᆞᆫ왈너는관변을밧드저
황셩의갓다가조로남방으로가는길에마낭은을
희털ᄂᆞᆫ순람이아니ᄂᆞᆫ연을ᄃᆞ리이역에잇서라셴낭
이남으로거단빨을둔ᄂᆞᆫ변저비야ᄒᆞᆫ로소쳥으로편
머려여왈우리는네길을그거나다가도적의게

옥이즙혀 기로ᄃᆡᆼ현일이다 즙히 못뎡ᄂᆞ야 장
군이 남모의셔 오셔 회ᄉᆡᆼ연져 남으로 가신다ᄒᆞ니 서ᄂᆡ장
녕이 ᄒᆡ장 년이 서ᄂᆡ가 그장쉬 왈 나ᄂᆞᆫ 평남도 원슈
난ᄉᆞᆫ 셰ᄉᆡᆼ 박하 현장이 ᄃᆡ어 거그리 ᄒᆞ여 이 못난노 셜녕
이ᄂᆞᆫ 슌상 소리를 드르니 흉ᄋᆡ 박혀 노쥐 실셩ᄃᆡ국
ᄒᆞᆫ너 그장슈ᄂᆞᆫ 원슈ᄂᆞᆫ 하장 바ᄃᆞᆯ이라 원슈의 묘믈
을 ᄲᆡ쳐 ᄃᆞ히 뎡ᄒᆞᄂᆞᆫ 길의 ᄌᆞ흉ᄒᆞ여 노라 ᄒᆞ야 가다
가 도적을 ᄶᅩᆺᄂᆞ니라 노상의셔 ᄂᆡ간의 국셩이 나ᄂᆡ듸
희화ᄃᆡᆼ이 ᄯᅩ 온ᄃᆞᆯ ᄃᆞ복슈ᄒᆞᆫ 겨ᄋᆡ 져의 슈젼을 ᄃᆞᆼᄒᆡ
ᄃᆞ 셜ᄌᆞᆫ 작ᄃᆡᆼ을 ᄂᆡ여 ᄶᅩᆺ츤 온너 못지 아녀 도적의게 ᄶᅩᆺ
기이 믈 알재라 길이 ᄲᅡᆺ부나어 지인 병을 구치녀
나되 오도적을 ᄃᆞᆯ 나치너 자거ᄃᆞᆯ 치셔 ᄇᆡᆫ ᄯᅩ 도적의
휘을 ᄇᆡᆫ되 못ᄒᆞᆫ지라 아조 ᄯᅬ도를 여ᄌᆞᆨ ᄃᆞ되 ᄒᆞ엿삼

ᄒᆞᄃᆡ 강산을 병ᄒᆞ여 이념쳡의게 가셔 ᄌᆡᆨ은 곤ᄃᆞᆺ을
너더오라 ᄒᆞ여 ᄯᅢ 쳔낭이 순양ᄒᆞ여 ᄯᅢ 올쳥의 ᄒᆞᆫ 바갈
져ᄎᆞᆫ지 강의 ᄒᆞᆫ낭ᄒᆞ여의 ᄃᆞ구 ᄎᆞᆯ화 이 염술지나 장군
은 다렴ᄆᆞ 되 ᄯᅢ 마셰ᄃᆞ 곰히 화쳥ᄒᆞ 쵸쳐 ᄯᅢ ᄃᆞᆯ될이 ᄌᆞ의
쳐낭ᄌᆞ 울ᄲᅱ 옷ᄲᅵ 불ᄒᆞᆫ이 ᄑᆞ 염의 ᄲᅮ임ᄃᆞ 낭ᄌᆞ의 안신
ᄃᆞ시 물보리 언ᄌᆞ도 되가 본의 아ᄂᆞ다 인쳥 밧일이
나ᄉᆞ경의 길이 밧복 온ᄂᆡ ᄲᅡᆯ니 ᄒᆞᆼᄒᆞ게 ᄌᆞᄉᆞ셔ᄒᆞ여
쳔낭이 ᄒᆞᆫ 각견ᄒᆞ게 산화암으로 가ᄌᆞ 들니 간인의 ᄯᅥ은는
레ᄌᆞ을 밋ᄎᆞᆯ되 ᄯᅡ 마저 못ᄒᆞᆷ을 일ᄂᆡ ᄉᆞ쳥을 복도을
도갈ᄒᆞ ᄯᅡ 달ᄂᆡ려 될여ᄃᆡ 조가 ᄌᆞ를셔 난니 엇가 ᄯᅡ달
이ᄒᆞᆼ을 광ᄃᆞ리 ᄃᆡ인도ᄅᆞᆯ여 ᄒᆞ다가 ᄌᆞ셔 ᄀᆞᄌᆞ을 너ᄃᆡ가
지ᄃᆞ 오거ᄅᆞᆯ 쳔낭의 오로 물쳥ᄒᆞ여 ᄀᆞ거ᄌᆞ 발ᄒᆞᄃᆞ
ᄲᅡᆯ거울 나될도 ᄌᆡᆨ이 연나가저이나 ᄒᆞ여시실

저서나갓가이계시변후환이녕스러오소
장을할아앨나가서우벽청도단이나손찰을어
더안신데신후갈여허나이다쉰낭이고지추편후
의을감동허여이운한원숙여은덕이물싱각
고아달을쌀아벽여태을휘줄여다져점을긔자
점쥭다뫼무더왈에곤지의도단이아사찰잇나목고
니쥭인왈여거서동으로심여러반가별산이잇시
니욱바산이라산하외긔란이잇다즐디를다시길나
신하외이를니가연졍쥐가퍼퇴여쳥슉편뫼봉이
내거이텬졍리가강욱벽티더하고산하외도단이
이시어졈쾨단이타란총의벽여병도쉬잇서형
젼단아줄여도필서잇더타바달이도손을보드숙간평
쇄헌졈을벨어썬낭●오쥭을안돈즐드강슨이명을

애몰내장의인을증ᄒᆡ게현후ᄒᆡ직얼원키여시
고저조평별혀타가시니소장의길이방ᄉᆞ본거라
이곳지옥벽ᄒᆞ오니이의거ᄎᆡᄒᆡ시ᄇᆞᆫ반슈ᄒᆡ시ᄂᆞᆫ날
다시오디이다셜낭이엘본셔을윈슉거ᄇᆞᆺ지ᄃᆞ창
연이작별ᄉᆞᆯ칭이체ᄇᆞᆫ의주비ᄒᆡ여감슈ᄒᆡᄂᆞᆫᄇᆞᆯ손을
다ᄒᆡ지못ᄒᆞ나이장근은원슉을모시ᄋᆞ데근을벌욱
시ᄃᆞ슉히조타오시물ᄒᆞᆨ슉히나이다소쳥을칭ᄒᆞ여
별노이작별ᄒᆞ며낭근을모셔고심보즁을물당부
ᄒᆡ더라ᄯᅢ열이발ᄒᆡᆼᄒᆞ니미쉬셜낭이ᄎᆞᆨ을몽
이의뫼사다나안신ᄒᆞ비평안ᄒᆞ니깃보물이거재
못ᄇᆞ장근ᄃᆡ을연리못ᄒᆞ며모든조셔셜낭의조ᄒᆞᆯ
인ᄒᆡ몰슌팡ᄒᆞ며츄졀이치평을더라셜시의우ᄎᆡ
이몰외베을모와신화담의몰이음을엿다가

니츈졍왈근근그러터니우리궁운여쇠ᄒ고니어그본
죄이니러오츈월왈거ᄂ은즌심ᄎ발나니임의
계고이시니궁을보투리리ᄅ누셜ᄒ발나죽서
우격의어든바쇽혀을가지ᄅ황부인을본회
니욕으니셜낭의신을소ᄎ을보여왈소ᄎ는이신
올일은시다니가황시이욕이보련니어지니억지ᄎ
왈오네의신을무어줄려가져온다츈월이집어
들ᄅ소왈불상ᄒ다셜낭이여이신을신ᄒ고니강ᄎ
의다졍낭의자쵀나보재퇑셩가지와서그리ᄃ그리던
바톨르불이시커케여은ᄎ을못ᄋ피ᄅ국원야지의발
슌지신이뫼저ᄎ황시연황부왈무신발이냐츈월
이은을뒤ᄎ며부인모녀암회ᄃ거안저며왈ᄎ미츈
졍을ᄒ동ᄒ여산ᄒ암의브니여셜낭을귀

탈ᄒᆞ엿다ᄒᆞ엿더니셜낭은ᄭᅳᆯ디잇ᄂᆞᆫ계집이라ᄉᆞᆫᄌᆞᆫ
치어우젹이칼노ᄶᅵᆯ너죽여셜채을어시ᄒᆞᄂᆞᆫ그셜
을가져오ᄂᆞᆫ즁거울보이ᄂᆞᆫ니중즁이훗ᄂᆞᆫ셜낭이채
간의연시ᄒᆞ어우리ᄒᆞ처의평셩화ᄂᆞᆫ을뎡ᄆᆞᆫᄒᆞ
비와ᄒᆞᆷ경우젹의즁에타장ᄎᆞᆺ무어스로고셔채을
강ᄃᆞ려타시다니잇가워시이말을듯ᄂᆞᆫ크게깃거어ᄂᆞ
심여탈취ᄒᆞᆫ다ᄒᆞ일ᄇᆡᆨ낭은즁을죽여우젹ᄒᆞᆷ경
의즁을갑흐ᄅᆞ라ᄒᆞ여ᄒᆞᆷ셜이내웅호왈ᄇᆡ구인은어저
이ᄯᅥᆫ손쇼져물노ᄃᆡ즁을김ᄃᆞ려ᄒᆞᆫ시니잇가다ᄒᆞᆫ일
의ᄀᆞᄐᆞᆺ치시나니잇가ᄒᆞᆷ경이우젹보ᄀᆡᆯ채의형즁
으로나우속ᄒᆞᄂᆞᆫ우젹의물이숙셩ᄒᆞ여병이라모다무
죄지베나ᄇᆞᆫ일려물을맛기려가ᄂᆞᆫ그일을바리지못ᄒᆞᆯ
리니ᄃᆡ손쏜ᄒᆞᆫ구셜ᄂᆞᆫ이되ᄇᆞᆫ여지조ᄒᆞ여ᄒᆞᆯ셔나니잇가

의시두려이와쳔흠을내여죡ᄒᆞ셜낭이죡운줄
노아더타차셜ᄒᆞᆫ낭원쉬ᄭᆞ닯을보내ᄒᆞ황병을
기다되더니쳔셔이도리도셔을받ᄒᆞ리을내긴원
워북ᄒᆞᆫᄂᆞᆫ비텨ᄒᆞ징더의을나군톄을바돌신흥
낭이흥ᄒᆞ흠감오ᄒᆞ리우쳔을차ᄒᆞ쳘월을짐아
도둑괴군톄ᄒᆞ뵈혼디도둑이다옹명ᄒᆞ왈쳥운이
방쿡텨을원슉죵임을박의ᄒᆞ닥옹줄시엇지
쐐보당ᄒᆞ쾌혀ᄒᆞᆫ노ᄒᆞᆫ원쉬대왈도둑이우의계시
내다ᄲᆞᆫ시기시ᄂᆞᆫ대ᄒᆞᆯ젼싱을오리니ᄭᆞᄂᆞᆫ방나으로ᄒᆡ
단줄퇴이가도둑이ᄡᆞᆯᄒᆡ더라흥원쉬ᄭᅳᆯ너ᄲᅡ텨
의도퇴와북원슉거호와졀월을세우ᄂᆞᆫ톄망의
군톄을바드ᄒᆞ다시대도둑장편외와황ᄂᆞᆫ긔계을
의ᄂᆞᆫ줄명니ᄭᆞ닯이ᄒᆞ도리황변을보ᄂᆞᆫ줄ᄒᆞ일

본소쳘을원슈게드리ᄃᆞ길의벽셩쳔ᄊᆞ난
ᄉᆞ연을셜파ᄒᆞ니도욱이ᄒᆞᆫ가ᄒᆞ니이셔의뫼블
쳔쳡벽셩쳔은ᄃᆞᆼ누의노면ᄅᆞ쳐로뢰졀다뱜
을아지못비효이염쉬ᄒᆞᆫ문흥의가ᄂᆞᆫ올ᄯᅴ구난
ᄒᆞᆯᄃᆞ산사안뎜의중력이조박ᄒᆞ가도젹의변으로
겸ᄒᆞ경ᄒᆞᆫ되볼변되못ᄒᆞᆫ을버이ᄲᅡ평ᄃᆞᆫ의ᄌᆞ혜
시불염에조련의ᄐᆞᆨ신을온이ᄂᆞᆫ다상긍의죡
신비타다ᄒᆞᆫ쳡이ᄒᆞᆫ알묘를며스ᄉᆞ로젼퇴ᄉᆞᆫ옥의ᄂᆞᆫ
듀츙혀로퇴을빗다ᄉᆞ지못되온구ᄂᆞᆫ의박히빗、
퇴심으로갈아치시물바타나이다되ᄂᆞᆫ이ᄀᆞ지로
가셔니옴신이더욱거졀ᄒᆞ을재ᄒᆞ남편을배자
보아ᄒᆞ희깃지김ᄒᆞᆫ편원을다못ᄒᆞ나이다ᄒᆞ엿더
라도록견ᄌᆞ의황시의소쟉언물이ᄒᆞ쳔낭의

덕을현신쇄은잇지못ᄒᆡ여더라병즈의졔쟝삼군
을모흔후나탁을평졍ᄒᆞ여황병을평졍ᄒᆞ고일월뒤
왕이신즈의재생지덕을잉은ᄒᆞᆫ다시번복리아
난듁쇄ᄂᆞᆫᄌᆞ손이북지을누ᄒᆡᄂᆞ니잇리면드시ᄂᆞᆫ데
앤치쳔ᄒᆞᆯ여북을길이누리ᄒᆞᆷ세나탁이ᄂᆞᆫ모물ᄒᆞᆯ
녀왈다인이쳔병을향거ᄒᆞ여ᄎᆔ여ᄒᆡ산ᄒᆞ나셩쳔
ᄌᆞ의ᄌᆞ흑ᄒᆡ싱라도ᄃᆞ의관흉ᄒᆞᆯ신은덕으로속령을
보젼ᄒᆡ여복지을여수이누리게ᄒᆞ신이도보필ᄇᆞ을아
지못ᄒᆡᄂᆞ이다홍원슈을보아ᄃᆡᆨᄒᆡ왈원슈의산문의
나시몬나탁의공이라엇지공병홍념이져갓치빗나
실쥴알아시리오홍원쉬소왈ᄃᆡ왕이온ᄃᆡ동쳔
을엿실ᄎᆔ여시몰다ᄒᆡᆼ은이오ᄃᆞ손의졍졔ᄒᆞᆯ싱이
홍ᄒᆞᆫᄃᆡ를이ᄭᅵ왕을져바리ᄆᆡ이난가ᄒᆞᄂᆞ이다

나락이데호를ᄃᆞ베로ᄉᆞ밧운도ᄉᆞᆫ의자룡인줄
아더라야일도두이발군을녀고지조나아가를서반왕
에죽욱을가뤄ᄉᆞᆨ실ᄒᆞ니밧과나와쳔송을ᄃᆞ대궁을
호채롤서롱ᄒᆞ야일지변이얼연괴라된ᄎᆔ이망왕
다려오ᄅᆞᆯ제군이왼쳔ᄒᆞᆯ니반병을빌너길을인
도계ᄒᆞ고쇼쳐반왕이ᄋᆞᆫ낙ᄒᆞ고회하쳔변ᄉᆞᆷ쳔아반장
쳘은북탕으로쳔봉이되게ᄒᆞ니홍원ᄋᆡ베로왼ᄉᆞᆯ
도로ᄂᆞ대왕이홍ᄒᆞ뎌왕야외ᄉᆞᆫ지원을거두ᄒᆞᆯ새
ᄃᆞ인국지의을보지아니ᄒᆞ신다ᄒᆞ니이는징복의일어
니이라이제야우리셩조의신하되여서화의ᄒᆞ기
싄각ᄒᆞ고쇼쳐반왕이ᄒᆞᆼᄒᆞᆷ이ᄃᆞ려ᄉᆞᆫ회ᄒᆞ고ᄃᆞ회로뎡케
지뵈을비켜병쳬ᄒᆞ니라도ᄀᆞ두게ᄃᆞ년를조 ● 두어남

방의이르순은위기변행즁에현실반부자의제길
무족의낭두치안이실제타남흉박성이지장찻
셩순댱을리어쳔록만세와혜택을누쳔고뢰
쥴나이다도둑이초왈에는셩상고화시타지충이
무삼덕이잇실이오해여타효원슈거하직왈라인
이믄나지방의션쟝들에안복이근록히뎡원슈을
빼옴이황즁을이순모히는텽션이야방셩활지운으
물감순혈셜새이이타즁춘별의단산이모변혼다
일셩쳔동어고회회라드러가두반가이뵈올가하나
이하흉왼쉬소왈셰호변혁즈이오온디변근인이라
텬슈남북의봉별이무쳔은나구즌이바다는바순증
즘이혹굴뎌앙운쳔만근비를에다세흉흔탈이갓흔
근즐이산와의이르게말은초세나하룽흉이뎌소

ᄒᆞ여자이셔일지연이홍원슈거ᄂᆞ왈쳡이ᄂᆞᆫ
길노ᄒᆡ직을잡아원슈여ᄃᆡ을쫏ᄂᆞᆫ가ᄂᆞ져ᄒᆞ나그
홍혀이얼을ᄒᆞᆯ네쏫자지못ᄒᆡ오니타일다시뵈
압기을바다나이다홍원슈심ᄂᆡ의싱각ᄒᆞ되일지
연의온모ᄉᆡ로을안제두거근ᄌᆡᄒᆞᆫ나ᄌᆡ의츄ᄅᆞᆯᄭᆡ움
이영스물보ᄂᆞᆫ그즁나이만즁이화ᄒᆞᆫ귀강ᄒᆞᆫᄒᆞ여
인원이쳑ᄋᆞ이라ᄒᆞ여ᄭᅵ홍ᄋᆞᆫᄂᆞᆫ그손을잡ᄂᆞᆫᄃᆞᆯ장이
ᄒᆡ아불이져난구부연이라난원슈심ᄂᆡ의웃더라
홍도국슨빅ᄒᆞ며오ᄒᆞ회을보라
남도독홍졔독변 홍원슈오계쳔도
각쳘남도독이힝ᄒᆞᆯ셰ᄆᆞᆫ징쳘복합은ᄆᆞᆫ병
산쳔거ᄂᆞᆯ려ᄃᆡ쳔봉은[illegible]ᄒᆞ여길을열나ᄂᆞᆫ

보내깁혀ᄒᆞᆫ 길의 지나지 못ᄒᆞᆯ 나흘으며 이곰
ᄒᆞ며 내ᄎᆞᆷᄯᅴ 박여 강이 나되ᄂᆞᆫ 저화삼ᄀᆞᆯ을 지회ᄒᆞ여
부챡을 ᄎᆞ온ᄒᆞ여 다리를 누어 반목을 져우마오
ᄂᆡ 물졀의ᄒᆞᆫ 이여 조ᄎᆞ 못졀으ᄂᆡ 슉싱명여ᄀᆞᆫ이엇
쳐 나오져 못 물의 새바지ᄂᆡ 비록 ᄌᆞᆨ시 건너나 졀신이
누ᄅᆞ챵 질ᄅᆞᆫ이 나거ᄂᆞᆯ 도독이 젼내ᄒᆞ여ᄃᆡ 시부ᄌᆞ의
셜내여 건너쾌 쇄번부여 쇄번솔어지너 꾀나 ᄭᅮᆯ방나
이엄ᄂᆞᆯ ᄂᆞᆯ이 쳐물 내ᄀᆞᆫ 총이 쾽ᄒᆞᆫ 매 물을 임ᄒᆞ여
모다 말ᄒᆞ되 물도ᄒᆞᆫ ᄒᆡ 건너져 못ᄒᆞ여 고ᄒᆞᆼ ᄇᆞᆯ ᄒᆞᆫ 젼ᄒᆞᆫ이
곱배를 ᄢᅢᆨ지 치ᄂᆞᆫ 물ᄂᆞᆫ ᄭᅦ여 ᄃᆞᆯ여 물을 ᄭᅡ며 ᄂᆞᆫ여되
못ᄒᆞᆯ 난지라 제ᄀᆞ 엄쳐 ᄀᆞᆫ 손을 물너 언ᄃᆡ의 ᄌᆞᆫ쳐ᄂᆞᆫ이
밤을 지ᄂᆞᆫ ᄒᆞ도록 이ᄡᆞᆫ 바울 다되ᄂᆞᆫ 물가외 나이 갓ᄃᆞ
ᄐᆞᆫᄂᆞᆫ 물을 보며 내밤여 쾨예 누ᄅᆞᆫ지 은이 언ᄃᆡ 거ᄉᆞᆯ나

쥭이샹의부어졉은모양이되나아기ᄇᆡᆨ울조되보
샹븐비졍ᄒᆞᆫ내롤조화려쾌셩ᄒᆞᆫ평이되ᄂᆞᆫ울
쟝ᄃᆞ불너왈통ᄒᆞᆫ달이와셔니평션을슈습ᄒᆞ소
졍쥭울말ᄉᆞᆷᄒᆞᆫ소쳐도쥭이미ᄂᆞᆫ이ᄃᆡ당왈평싱이
녕ᄂᆞᆫ거시아니라두둔ᄒᆞᆫ거심ᄒᆞ나견디기어렵도다
원슈ᄒᆞ소ᄒᆞ미ᄂᆞᆯ불너두쳡나우를지어몬져화ᄒᆞ쿠
ᄃᆞ동쳡을보와강화지쾌을ᄉᆞ쳐ᄒᆞ여연이너외병
셰쳡ᄂᆞᆫ흡ᄒᆞ여거장지못ᄒᆞᆯ지라ᄃᆡ리쳥ᄒᆞᆫ젼장거병
쟝을ᄇᆡ산약을ᄒᆞᆫ들ᄃᆞ우쵸을베ᄒᆞᆫ칠ᄂᆡ국ᄃᆞᆫᄒᆞᆫ
이동ᄂᆞᆫ흉ᄒᆞᆫ쳐러니어제황졔의ᄯᅳᆺ혀졍ᄒᆞᆫ을이엿ᄒᆞᆫ셔
마음이번뇌ᄒᆞ여화기홍실ᄒᆞ미ᄯᅡ이어지흡거어니
뢰되시과이얼나지어지울지모이의쾌강을번ᄃᆞ부
동여ᄒᆞᆯ동치말나ᄒᆞᆫᄃᆞ원슈나아가본니ᄐᆞ두이시

텬지을일분얼기ᄒᆡ이이텬생지거울젹버리지
양이ᄂᆡ라북유인생이로서무상이라곤은라조이베
의치말ᄂᆞᆫ흑텬라일의ᄒᆞᆫ생ᄂᆞᆫ거본인연을잇게ᄒᆞᆯ
라ᄒᆞ엿더라 ᄃᆞ독이살기을다ᄒᆞᆫ비벗ᄉᆞᆯ더지며
아서ᄉᆞᆫ을잡아낭ᄌᆞ이보더니회ᄒᆡ던식ᄂᆞᆫ언ᄒᆡ여영이
곳ᄎᆡ질ᄂᆞᆫ듯ᄒᆞ니ᄋᆞ회라ᄒᆞᆯᄉᆞᆫ에청신셜ᄉᆞᄃᆞ니잠ᄉᆞᆫ
녕웅누만금은텬지운쇄라국가ᄒᆞᆫ만의거ᄒᆞᆫ지사
라엿지잉ᄃᆡᆨ의ᄒᆞᆯ베리으ᄎᆞ시홍낭이평선이비월
ᄒᆞᆫ텬지아ᄃᆞ록ᄒᆞᆫ여어된다서인외생각긴ᄃᆡ닝일리
이어곤ᄒᆞᆫ부모ᄒᆞᆫ약이업고ᄉᆞ생녕육이낭인ᄒᆞᆫ거
달너서ᄂᆡ이ᄎᆡ가지두생ᄒᆡ본흑으물갑게미아ᄂᆡ
파낭도흑을위ᄒᆡ에ᄋᆞᆫ시석ᄒᆞᆫ젼의곤셔나지ᄒᆞᆫ며
ᄂᆞᆫ흐을베상이ᄒᆞᆫ건도어지공주을ᄎᆞᆺ구엿

시리오이재도독이불힝ᄒᆞᆫ츄국가련외을네
이알녀삼손진퇴을내여이알네오게ᄊᆞᆺ당이굴어ᄊᆞᆫ순
을모로니ᄊᆞᆫ갓치보ᄒᆞᆫ도다츄의을대쳥ᄒᆞᆫ도되ᄒᆡ
바라ᄆᆡ이엇는가다시도독의아ᄒᆞ희라아카ᄃᆞ미니불너왈
상공은평신을ᄒᆞᆫ되손쳡의ᄒᆞᆫ마듸불ᄉᆞᆷ을ᄃᆞᄃᆞᆫ소셔
ᄒᆞᆫ나도독이당쵸어이겨ᄂᆞᆯ낭에쳔재망국ᄒᆞᆯ여생각
ᄒᆞ고키위일츄의악북쇄을비파도날ᄒᆞᆫ번쓰재못ᄒᆞᆯ
본엇지왈ᄒᆞᆫ즉이어러오되ᄃᆞᄒᆞᆫᄃᆡ을어로내갈ᄒᆞᆷ이소
연치이어허ᄃᆞ빅을정허약을셩각ᄒᆞᆫ나평신이왈ᄒᆞᆯ
ᄒᆞ여진쇄을갈ᄒᆡ강을길이업는져ᄒᆞᆫ길이정단ᄒᆞ
ᄒᆞᄃᆞ왈ᄒᆞᆫ평성의뎌ᄉᆞᆫ을당ᄒᆞ나마음이창황ᄒᆡ미여러
니이반다시ᄒᆞᆫ날이나의ᄒᆞᆫ을ᄒᆡ이ᄉᆞᆫ길ᄒᆡ아니ᄒᆞᆫ평
ᄒᆡ라ᄒᆞᄃᆞ과우을굴내자라ᄒᆞᆫᄃᆞ다시도독의손을잡ᄃᆞ

울여왈쳡이상공을ᄆᆡᆼ낭계소원ᄒᆡ이변을이별ᄒ
여순션을몰ᄂᆞ다가쳔녀의작여쓸어젼연변을여의와
다시이여여션을의닥할가ᄒᆞ엿더니이제바리ᄂᆞ가.
시ᄇᆡ일연니ᄲᆞᆯ조이ᄋᆞ서나가해ᄇᆡ누쉬비오ᄃᆞᆺᄒᆞ니
도죽에눈을ᄯᅥ잠ᄭᆞᆫ보ᄂᆞᆫ쉽을ᄒᆡᆼ거ᄆᆡ여새눈물
을ᄂᆡ여음어토기소ᄅᆞᆯ회여ᄒᆡᄂᆞᆫᄲᆡᆺ처잇서발못ᄒᆞᄂᆞᆫ모
양이라ᄒᆞ고평신이남아잇서물라ᄒᆡᆼ동여나을ᄭᅧᆯᄒᆞᆫ며붓
ᄃᆞ외ᄒᆡ여더니ᄯᅩᄂᆞᆫ두일ᄒᆡᆼ에호의념호ᄂᆞᆫ룰ᄂᆡ오호석거터
디제ᄀᆞᆫ곤오몰ᄂᆞ누호걸ᄂᆞ쳔ᄒᆞᆫ장ᄇᆡᆫ녀에갓쳐ᄆᆡᆼ여엿
제쳔의졉작쥐이나시리요ᄒᆞᆫ낭이낙을곳고굽히
그몸을반혀보여ᄇᆡᆨ복일ᄒᆡᆼ에과ᄐᆞᆫ식ᄀᆞᆫ일에나ᄂᆡ왈
ᄒᆞᆫ마못보리로다ᄒᆡᄃᆞ장ᄇᆡᆺ고조나오니요순미와졔장이
모리장ᄇᆡᆺ거쳔다가ᄒᆞᆫ평을뭇거ᄂᆞᆯ원쉬량